

## 방송광고 규제 정비, 협찬제도 합리화 적극 추진할 것



협회는 지난 1월 31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초청, 협회 회원 30여 명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건의했다.

지상파 중간광고 제도화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“과거처럼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입은 필요하다”며 지상파 중간광고의 허용 여부와 시기에 대해 금년부터 명시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이 위원장은 “앞으로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 정비, 광고판매 및 협찬제도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하며 “광고는 방송 콘텐츠를 지지하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.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, 러시아 월드컵,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큰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어 광고효과를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협회는 매체간 비대칭 규제 완화를 비롯한, 통합시청률 도입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광고효과 측정 기반 조성과 건강한 광고협찬 환경 조성을 건의했다. **KAA**

이수지 [susie@kaa.or.kr](mailto:susie@kaa.or.kr)

